



생명의 탄생, 신비이자 축복입니다



박정우 신부 | 생명위원회 사무국장

만은 사람들이 '12월'이 유난히 특별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성탄절'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얀 눈, 크리스마스 캐롤, 산타클로스와 선물, 아름다운 성탄 장식 등의 이미지와 맞물려 '성탄절'은 그리스도 신자 여부를 떠나서 영혼의 고향을 일깨우는 듯 모든 이들의 마음에 따뜻하게 해줍니다. 무엇보다도 "성탄절"의 핵심인 아기 예수의 탄생은 새로움과 생명력이 가져다주는 희망과 기쁨으로 들뜨게 합니다. 어둠 속에 빛이 비추듯, 단비가 메마른 땅을 적시듯, 성탄의 신비는 믿는 이들의 영혼을 은총으로 가득 채워 충만하게 해줍니다.

요즘 싸이월드나 페이스북과 같은 소셜네트워킹 수단을 이용하는 젊은 부부들이 출산을 기다리며 '초음파 사진'으로 아기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기도 하고, 출산 후에는 '육아일기'를 쓰는 등 아기가 자라는 과정을 글뿐 아니라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친구들에게 자랑스럽게 알려주는 것을 자주 보게됩니다.

한 생명이 태어나기까지 설레며 기다리는 부모의 희생과 사랑이 얼마나 큰 지, 주변에 얼마나 많은 이들의 기도가 모여서 전달되고 있는지, 그리고 새로 탄생한 한 생명이 주는 기쁨과 축복이 얼마나 많은 이들에게 크게 작용하는지 느낄 수 있습니다.

하느님을 닮은 한 인간이 새롭게 이 땅에 존재하게 되는 '생명의 탄생'은 참으로 놀라운 신비이며 축복입니다. 경제적 효율성을 최고의 가치로 따지는 요즘, 탄생을 경제적 짐으로 여기는 경향이 만연해있지만, 우주와 같은 무게를 지닌 한 생명의 가치를 돈으로 따질 수는 없습니다. 방긋 웃는 아가 앞에서 세상 부러울 것 없이 행복한 그 부모의 기쁨을 양육비의 부담으로 상쇄시킬 수는 없습니다. 생명의 주인께서 필요한 것을 마련해 주신다는 믿음이 아쉬운 요즘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우리 주변의 모든 생명의 탄생 역시 신비이며 축복임을 기억합시다. ♥



Contents

02 권두언	생명의 탄생, 신비이자 축복입니다 / 박정우 신부
04 특집1 : 생명! 오늘	출산과 축복 그리고 구원 / 전영준 신부
10 생명수호의 현장	너무나 소중한 선물 / 신정은 미카엘라
14 특집2	탄생과 출산의 신비 / 임명희 플로라
18 특집3	아기예수 프로젝트 / 박미성 수녀
22 가톨릭관련 영유아교육시설 안내	
26 생명윤리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	「생명의 복음」- 세 번째 여정 / 이동호 신부
32 생명사목	라헬 프로그램 / 강인숙 프리스카
36 생명 관련 주요단체 연락처	
38 생명 관련 교육 및 행사 안내	
39 후원안내	



For Life

생명을
위하여

출산과 축복 그리고 구원



가톨릭교회의 가르침 안에서 출산에 대한, 정형화되어 있는 신학이나 영성이 따로 있지는 않다. 반면에 신·구약 성경을 살펴다 보면 하느님께서 특히 불임 여성들의 어려운 사정을 들어 주시는 가운데 출산과 관련되는 몇 개의 일화들을 찾을 수 있다. 그 일화에 등장하는 여인들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자신의 처지에 대한 깊은 상처를 때로는 하느님께 울부짖기도 하고, 자포자기하기도 하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고자 무모한 시도를 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 어떤 경우일지라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은 하느님이시다. 하느님께서 때는 직접, 때로는 천사들을 보내어 여인에게 아이를 갖게 될 것을 알리시고 그 소식을 접한 여인은 두려움에 반신반의하다가 서서히 확신을 갖게 된다.

분명 출산은 하느님께서 주시는 복이요, 구원의 표징이다. 하느님께서 하란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어 가나안으로 떠날 것을 명령하실 때,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복을 내리시겠다고 약속하신다(참조, 창세 12,1-2).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려면 아브라함은 많은 자손을 거느려야만 한다. 다산이 보장되어야만 얻을 수 있는 복인 것이다. 모든 것이 불투명한 가운데

전영준 바오로 신부
가톨릭대학교 영성신학 교수

아브라함은 결국 믿음 하나로 하느님이 베푸시는 구원을 거머쥐게 된다. 그러므로 하느님께서 친히 이끄시는 출산의 드라마 속 숨은 의미를 몇몇 여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사라와 이삭

(창세 16-18장)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후손이 번성할 것이라는 약속을 하신지도 꽤 오래되었는데, 그의 아내 사라는 늙도록 아이를 낳지 못했다. 사라는 마음이 초초한 나머지 인간적인 해결책을 간구한다. 자신의 여종인 하가로 하여금 아브라함의 아이를 낳게 함으로써 사라는 그 아이를 자신의 아들로 삼아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선사하고자 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 이스마엘은 하가의 아들일 뿐이라며 사라의 미련함을 지적하고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 번 후손이 번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약속을 하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아내와 자신의 늙은 나이를 생각하며 차라리 이스마엘

에게 기대와 희망을 찾으려 했다. 또 다시 하느님은 마르레의 참나무 곁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듬해에 아들을 낳을 것을 예고해 주었으나 사라는 도무지 믿으려 하지 않았다. 결국 아브라함은 백살의 나이에 아내 사라가 아들, 이사악을 낳았다.

늙은 나이에도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은 아브라함보다 아내 인 사라에게 더욱 괴로운 사건이었다. 인류 역사에서 과거로 갈수록 지순을 많이 낳아 생명을 이어가고 미래를 보장받는 것은 중요한 일이었기에 여인에게 불임이란 참을 수 없는 고통과 치욕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하느님의 축복의 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라는 인간적인 방책을 강구했고, 그 계획을 하느님께서는 달갑지 않게 여기셨다. 아브라함의 경우도 일흔 다섯에 하느님께 들은 약속을 기약 없이 기다리는 동안 수차례 의심과 포기 of 길을 걸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당신이 먼저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일이라면 언젠가는 완성하신다는 것을 보여 주신다.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해결이 되지 않을 듯한 상황을 만드신 후에 당신의 권능으로 모든 일을 완성하신다. 결국 사라의 출산은 사라 개인적으로는 아이를 낳은 여인이 되는 복을 누리는 것이었지만, 구세사의 측면에서는 하느님의 복과 구원을 누릴 하느님 백성이 생겨나는 것이었다.

마노아의 아내와 삼손 (판관 13-16장)

마노아의 아내 역시 임신할 수 없는 몸으로서, 아이를 낳아 보지 못한 여인이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십여 년 동안 필리스티아인들에게 꺾박을 받고 있을 때, 주님의 천사가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나서 아이를 낳게 될 것이라는 소식을 전한다. 남편 마노아도 반신반의했지만, 다시 나타난 천사에게 또 다시 아들을 가질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두려움에 사로잡힌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었다. 아이를 가진 마노아 아내는 포도주와 독주뿐만 아니라 부정한 것은 아무것도 먹어서는 안 되며, 태어날 아기는 평생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번 경우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마노아의 아내의 개인적인 고통 호소에 대한 응답으로써 주어진 출산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이방인에게 고통받았던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시고자 하는 하느님의 계획이셨다. 이때 임신한 여인은 하느님의 명에 따라 몸가짐을 바르게 함으로써 무사히 삼손을 낳을 수 있었다. 하지만, 삼손은 여인의 꾀임에 넘어가 자신의 힘의 원천을 털어 놓고 머리카락을 잘리는 바람에 힘을 잃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뒤늦게라도 회개하고 하느님께 청을 드린 덕분에 필리스티아인들의 억압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할 수 있었지만 하느님께서 계획하신 일에 인간의 생각이 앞서는 바람에 구원의 기회를 놓칠 뻔 했던 사건이었다.

한나와 사무엘 (1사무 1-3장)

이야기는 개인의 고통에서부터 시작된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데다가 남편의 또 다른 아내에게 팔시를 받으면서 마음고생이 컸던 한나는 성전에 나가 자신의 신세를 굶어 살피 주십시오 하느님께 간절히 기도드렸다. 처음에는 한나가 술주정을 하는 줄로 알았던 사제 엘리는 그녀의 사정을 듣고 하느님께서 청을 들어주실 것이라며 안심시켰다. 결국 하느님의 축복 속에 아들을 낳게 된 한나는 하느님께 감사드리고자 아들을 하느님의 일꾼으로 바치겠다고 서원을 했고, 사무엘이 젖을 땔 무렵이 되자 사제 엘리에게 아들을 맡겼다.

한나와 사무엘의 경우에는 철저히 하느님께 의탁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자신의 처지를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 하지 않고 하느님께 호소하며 의탁했고, 아이를 낳은 후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잊어버리지 않고 아이를 하느님께 봉헌하기로 서약하고 실행에까지 옮겼다. 어린 사무엘도 성전에서 생활하면서 바르게 잘 자랐고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순명하면서 평생을 지냈다. 결국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관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가운데 겪는 혼란과 불신앙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했으며, 하느님의 명에 따라 사울왕과 다윗왕을 축성하여 이스라엘의 왕으로 내세웠다. 하느님께서는 한나의 출산을 통해 이스라엘의 미래를 준비하시고 구원하신 것이다.

엘리사벳과 세례자 요한 (루카 1장)

사제 즈카르야의 아내 엘리사벳도 늙은 나이가 되도록 아이를



낳지 못한 여인이었다. 어느 해 당번이 되어 성전 안에서 제사를 지내던 즈카르야에게 하느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아내 엘리사벳이 아이를 낳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하지만 얼른 그 말씀의 뜻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즈카리아는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병어리가 되었다. 늙은 나이에 가진 아이는 이미 태중에서 성령으로 충만했고, 역시 태중에서 아기 예수님의 방문을 받았을 때 기뻐 뛰놀기까지 했다. 예고한 대로 아이는 무사히 태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실 구세주를 알려 주는 커다란 역할을 담당했다.

구약의 마지막 예언자로서 구약 시대를 마감하고 신약의 첫 선지자로서 신약 시대를 열었던 세례자 요한은 하느님께서 친히 계획하시어 하느님 앞에서 의로운 이었던 엘리사벳을 통해 태어났다. 잠시 머뭇거린 나머지 즈카리아는 한동안 병어리가 되기는 했지만, 엘리사벳도 요한도 하느님의 계획에 순명한 덕분에 구약의 예언이 완성되고 주님의 오실 길을 잘 준비할 수 있었다. 아이를 낳지 못하던 늙은 엘리사벳의 출산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미래의 인류까지 포함하여 모든 인간들이 구세주를 알아 뵈고 구원의 은총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마리아와 예수님 (마태 1-2장; 루카 1-2장)

신·구약 성경에서 출산에 대한 이야기의 정점을 이루는 것은 예수님의 탄생일 것이다. 예수님의 탄생 예고는 다른 모든 이야기와 비교할 때, 그 배경이나 상황이 전혀 다르다. 마리아는 아직 젊은 나이로 요셉과 약혼만 한 사이였지 같이 살고 있지도 않았기 때문에 출산을 시도한 적도 없어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으로 인식되지도 않은 상황이었다. 오히려 마리아는 아직 처녀였기 때문에 출산을 한다는 것은 부정한 죄를 지은 사람으로 인식될 상황이었다. 그러니 아이를 낳게 해 달라고 하느님께 울부짖을 필요도 없었다. 그런데 하느님께서서는 그런 마리아를 선택하시어 당신의 천사로 하여금 아이를 낳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린다.

마리아는 세상의 오해와 위험을 무릅쓰고 주님의 종으로서 하느님의 계획에 순명한다. 약혼자였던 요셉도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 순명해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인다. 그리고 구세주이신 하느님의 외아들 예수님은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세상에 태어나신다.

예수님의 성탄은 하느님의 구원계획의 완성을 향한 마지막 단계의 서막을 알리는 것이다. 하느님의 선택과 부르심에 마리아와

아와 요셉이 기꺼이 순명하였기에 무사히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수 있었고, 그 후에 성가정의 구성원들은 하느님의 계획에 순명하며 지냈기에 예수님은 잘 성장해 무사히 공생활을 시작하실 수 있었다. 결국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써 우리 죄인들을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에 들어갈 수 있게 만드셨고, 우리들로 하여금 구원의 은총을 받을 수 있게 하셨다.

성경에서 말하는 출산은 하느님의 축복의 현상이었고,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주는方便이었다. 하느님께서서는 친히 불임의 고통에

통에 놓인 여인들을 선택하시어 우리들이 일반적으로는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들을 축복하시고 구원하신 것이다. 때로는 인간 스스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불임의 고통을 해결해 보고자 시도했지만 오히려 좋은 결과를 가져온 적은 없었다.

어쩌면 하느님께서 부부에게 선물로 주신 출산을 인간이 인위적으로 조정하려는 모든 행위에 경고를 보내고자 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출산과 관련된 모든 상황들을 하느님께 내어 맡기고 순명할 때 그분께 복을 얻고 구원의 은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할 것이다. ♥





너무나 소중한 선물

한 생명을 잉태하고, 몸속에 품고 낳는다는 것, 그것은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행한 일 중에 가장 값지고 멋진 일이라 자부한다. 처음 아기가 생겼을 때의 감동과, 태중의 아기가 커가면서 보여준 움직임들, 그리고 힘들고 무서웠던 분만은 어떤 책이나 글로도 간접체험을 할 수 없는, 또 아빠는 하고 싶어도 결코 할 수 없는 신비로운 경험이기 때문이다.

“큰 병원 응급실로 가보세요. 만삭 임신부니까 아마 받아줄 거예요. 진료비는 나중에 청구하겠습니다.”

막 주치의에게 “이 병원은 시설이 안되어 있으니, 큰 병원에 가서 분만하라”는 말을 듣고 나오는데, 내 뒤통수에 대고 간호사가 남긴 말이다.

하늘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제서야 지금 나의 상황이 실감 나기 시작했다.

오후 10시 반경, 갑자기 진통도 없이 양수가 터졌다. 가는 날이 장날이라 했던가… 예정일이 한 달 반이나 남았는데, 첫 아이에, 남편도 일 년에 하루 있는 야유회날이라 집에 없는 바로 오늘, 우리 아이가 나오려고 결심했던 것이다. 양수가 터진 후 24시간 안에 아이가 나와야 한데, 슬슬 겁이 나기 시작했다.

남편의 직장 때문에 청주에 내려와 살길 2년째. 큰 병원이라고는 충북대병원 하나밖에 아는 곳이 없던 나는 눈물을 흘리며 그 곳으로 운전을 하기 시작했다. ‘한심한 의사 같으니! 항상 안심하라더니 이렇게 무책임하게 다른 병원에 책임을 떠넘기고 양수 터진 산모를 내보내버리다니…’. 게다가 진료비를 청구하겠다는 건 또 뭐냐?’ 하는 생각과 함께 ‘아이가 뱃속에서 내가 느끼는 두려움을 함께 느끼면 어떡하지? 양수가 모자라 힘들어하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으로 머리가 복잡했다. 응급실에 도착하자 충북대병원 역시 산부인과 의사들이 모두 분만중이라 안된다며 분만을

받아줄 수 있는 병원을 찾기 시작했다. 레지던트들이 무책임하게 산모를 무작정 보낸 병원을 탔하며 전화를 돌리기를 40여 분, 그동안 남편은 도착했지만, 양수는 이미 상당량이 흘러, 제대로 된 사고가 되지 않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러다 잘못되면?’ 무서운 생각만이 머리를 가득 채우고, 주님께 너무나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드디어 천안에 있는 한 병원에서 분만이 가능하단 연락을 받았다.

구급차를 타고 달리는 1시간. 패닉상태였던 나는 일단 병원이 섭외되었다는 생각에 한숨을 돌리고 본격적으로 시간을 계산하기 시작했다. ‘양수가 터진 후 24시간 안에 분만을 해야 태아가 위험하지 않는데, 이미 3시간 이상이 지났어. 괜찮을까?’ 옆에 함께 타고 있던 남편은 못 마시는 술을 마시고 나름 패닉상태였다. 정말 날도 이런 날이 걸리다니….

‘길에서 구급차를 보면 꼭 비켜주어야지.’ 라고 생각하며 병원에 들어가 입원수속을 마치고 병실에 누웠다. “태아는 특별히 문제가 없습니다.”라는 의사의 말과 양수가 터진 이후 6시간만에 들은 태아의 건강한 심장소리에 겨우 안심이 되었다. 양수는 거의 다 빠져나왔으나, 진통은 없는 상태여서, 유도분만제를 투여하고 진통이 오기를 기다렸다. 그러고 대기하기를 몇 시간, 양가집 부모님께서 오시면서 본격적인 진통이 시작되었다.

“기도해라. 기도하면 모두 이길 수 있어” 라며 묵주를 쥐어주시

는 친정어머니, “아직 하늘이 노랑지 않지? 그럼 멀은거야. 난 바닥을 기어 다닐 정도로 아팠어. 좀 더 힘을 내렴”하고 응원해주시는 시어머니. 모두 내가 안쓰러우셨겠지만 그 순간엔 모든 게 귀찮고 아프기만 했다. ‘여자로 태어나지말걸’, ‘아기가 힘들면 어찌지?’ 수많은 생각이 진통과 맞물려 떠올랐다, 가라앉았다 요동쳤다. 그러기를 13시간. 이제 30분만 더 있으면 양수가 터진지 만 24시간이라 걱정하는 맘을 알았는지 드디어 아이가 나올 때가 되어 분만실로 들어갔다.

얼굴도 처음 보는 응급 분만 의사들에게 둘러싸여, 너무나 어색했지만 곧 무시무시한 진통에 수치심도 잊고, 힘주다 멈추면 태아가 위험하다며, 의사들이 뛰어올라와 배를 누르고 하기를 십여 분, “으앙!” 우렁찬 울음소리가 들렸다.

“손가락이 몇 개예요? 발가락은요?” 이미 초음파로 보아서 알고 있는 사실이었지만, 남편과 나는 그저 너무 놀랍고 신비로운 아기의 모습에 같은 물음만 되풀이했다. 이윽고 간호사에게 안겨 첫 만남을 가진 우리 아기. 어떤 생명이 그렇게 아름답고 신비로울 수 있을까!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눈, 코, 입이 다 제 자리에 있다는 것, 손, 발이 모두 멀쩡하다는 것, 숨을 쉬고 울 수 있다는 것 모두가 너무나 감사하게 느껴졌다. ‘아 하느님, 감사합니다.’ 그 생각을 마지막으로 정신이 몽롱해져갔다.

두렵고, 힘들고, 떨리던 순간을 함께 나뉘서일까? 지금도 남들



보다 조금 빨리 세상에 나온 큰아이를 보면 ‘용감하고 힘차게 세상에 나와 주어서 고맙다’란 생각을 한다.

속싸개에 쌓여 한손으로 안으면 팔꿈치까지 닿지도 않던 유난히 작고 귀엽던 우리 아기가 어느새 자라서 “엄마, 사랑해요.”하고 하트를 손으로 만들어주는 6살짜리 꼬마가 되었다.

한 생명을 잉태하고, 몸속에 품고 낳는다는 것, 그것은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행한 일 중에 가장 값지고 멋진 일이라 자부한다. 처음 아기가 생겼을 때의 감동과, 태중의 아기가 커가면서 보여준 움직임들, 그리고 힘들고 무서웠던 분만은 어떤 책이나 글로도 간접체험을 할 수 없는, 또 아빠는 하고 싶어도 결코 할 수 없는 신비로운 경험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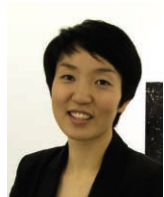
지금은 6살, 4살짜리 두 아들의 엄마가 되어서, 생명의 탄생을 두 번이나 경험한 경력엄마가 되었다. 두 번의 경험으로 느낀 것은 분만의 순간이 두렵고 힘든 것이 단순히 하와가 하느님께 별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첫째 아이는 어렵게 자연분만을 하고, 둘째 아이는 전치태반(태반이 아래쪽에 위치해 출혈이 심할 수 있어 수술을 많이 한다.)이라 자연분만을 시도하다가 긴급수술을 했는데, 함께 어려움을 겪은 첫째 아이는 전장의 전우와 같은 동질감이 있는 반면 내가 의식이 없을 때 태어난 둘째 아이는 전우 같은 끈끈한 느낌은 아무래도 덜하다.(물론 두 아이 모두 너무 사랑스럽고, 특별히 누가 더 예쁘다거나 하

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하느님께서 하와에게 아이를 더욱 애뜻하게 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 아닐까?

여자는 아기를 잉태하고, 낳아 기르면서 엄마로 다시 태어난다. 하루하루 발달하고, 자라나는 아이를 보며, 눈을 맞추고, 함께 숨쉬며 느끼는 일련의 과정들을 수 만 번의 시행착오를 거쳐, 익숙해지다 보면 어느새 한 아이의 엄마로서 적응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기 때문이다.

“다녀왔습니다!”

오늘도 유치원 버스에서 내리며 그 누구보다 씩씩하게 달려오는 아이를 보면서 아이는 더욱 성장하는 한 인간으로, 또 엄마는 조금 더 성숙하는 어머니로 다시 태어날 새로운 순간을 주심에 설레는 마음으로 감사한다.



신정은 (미카엘라)
옷칠공예가

탄생과 출산의 신비



임명희 (플로라)
동남보건대학 보육과 교수

“2006년 5월 30일 00시 16분, 제 딸 로사 베네리니가 한 인간으로 세상에 발을 내디딘 탄생의 날이며, 제가 한 아이의 어머니가 된 출산의 날입니다. 10달 동안 아기를 기다린 길고도 짧은 시간동안 어머니로서 제가 경험한 것은 놀라운 체험이었습니다.

임신 소식을 듣고 너무도 기뻐했으며, 차근차근 앞으로 태어날 아이를 위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신기하게도 태아에게 해가 되는 음식은 먹기 싫었고, 노여운 일도 별로 없었고, 참 여유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모성의 힘이 아니었을까요? 정말 놀라운 체험이었습니다.

아기를 위해 태교 프로그램에도 참여했고, 43세라는 노산의 몸으로 자연분만을 위한 체조 프로그램에도 참여했습니다.

아기가 태어난 날, 애석하게도 자연분만은 실패하고 제왕절개를 하게 되었지만,

감사하게도 제 담당 의사선생님께서 저와 태어날 아기를 위해 대기해주셨고, 무사히 한 생명을 낳게 되었습니다.

지친 몸으로 아기를 바라보며 ‘어, 바로 너였구나’ 라는 마음속의 외침과 함께 저는 잠이 들었습니다.”

이 에피소드는 4년 전, 저의 체험담입니다. 사실, 출산과 탄생의 순간을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건강한 아이를 갖기 위한 여성으로서의 노력, 아기를 가졌다는 임신의 기쁨, 아기의 탄생을 기다리는 준비와 태교의 과정, 분만의 고통, 출산과 탄생의 기쁨이 출산과 탄생의 과정에 있습니다.

매 순간 순간마다 산모에게는 많은 생각과 의사결정이 필요하며, 기쁨과 행복도 느끼고, 태아의 움직임에서 생명의 진귀함과 소중함도 체험합니다. 그래서 이 기간은 어머니에게 있어 인간적 성숙

의 시간이요, 우리 여성에게만 주어지는 하느님의 축복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출산과 탄생의 의미를 살펴봅시다. 출산과 탄생에는 두 사람의 인격이 존재합니다. 출산에는 어머니가 주체가 되는 생명의 역사가 포함되어 있고, 탄생에는 앞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삶의 주체인 새 생명체의 시작의 역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먼저 출산에 포함된 어머니됨의 역할과 과정에서 신비의 체험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출산과정에서 어머니로서 여성은 임신, 입덧, 금해야 할 사항(금주, 금연, 음식), 절제된 성생활, 태교, 정기검진 등을 체험하게 됩니다. 모두 다 중요한 사건들이지만 이 중에서도 임신과 태교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임신은 인간 역사의 기적이라면 태교는 기적에 대한 인간의 참노력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인간이 임신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은 생명의 신비입니다. 여성의 자궁은 생명이 만나는 곳이고, 동시에 생명 안에 또 하나의 생명이 숨 쉬는 곳이며, 새 창조를 준비하는 신성한 근원적 장소입니다. 이곳에서 사랑의 열매인 아기가 생성되는 것입니다. 이는 부부관계로 맺어진 역사적 사건이지만, 이 아기는 부부의 선택에 의해서 맺어진 인연이 아닙니다. 이는 생명의 신비 그 자체이며, 우주의 질서입니다. 인간의 의지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이 생명의 신비롭고 경이로움에 대해 얼마나 감사하고 있을까요?

태교는 우리나라에서 예로부터 중요하게 강조된 어머니됨의 역할이며 과제였습니다. 이는 새 생명체에 대한 문화적 배려이고, 어머니됨의 위대한 실천이며, 모성애의 표현이라 하겠습니다. 태교란 어머니가 아기를 가졌을 때 이루어지는 모든 교육을 의미하는데, 태아에게만 주어지는 일방적인 교육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와 아기 모두에게 행해지는 교육을 뜻합니다. 즉, 태교란 거룩한 생명의 창조를 준비하기 위한 어머니의 인간교육이요, 인간의 참노력인 것입니다. 이에 어머니는 임신초기부터 심신이 건

강하고 훌륭한 아기를 낳기 위해 올바른 마음과 몸가짐, 온화하고 자애로운 성품, 자신의 건강과 환경을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합니다.

이처럼, 새 생명체가 잉태되는 순간부터 어머니됨의 거룩한 역사는 시작됩니다. 한 여성이 어머니가 된다는 것은 개인적 삶에 있어 두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한 가지는 개인적인 완성이며, 다른 한 가지는 되돌릴 수 없는 거룩한 책임입니다. 즉, 어머니의 여정을 통해 한 인간으로서 자기 자신에게는 개인적인 성숙과 완성을 이루는 것이고, 다른 한 생명에게는 자기 자신의 역할과 능력을 충실히 발휘할 수 있도록 신뢰의 밑거름이 되어주는 일입니다. 이는 생애 있어 매우 가치 있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란 존재는 본래적으로 자식을 위해 언제든지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고 항상 자식을 위해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자녀가 평생토록 헤쳐가야 할 여정에 기꺼이 동참하게 됩니다. 이처럼 어머니는 한 생명체의 탄생과 인간적 삶의 가치를 위해 애쓰는 피난처이고, 무조건적인 수용자이며, 지지자 및 지원자이며, 치료자이며, 자녀를 위한 위대한 열혈 투사인 것입니다.

임신의 여정이 끝날 즈음, 어머니는 출산의 경험을 맞이합니다. 출산은 우주의 질서를 위한 가장 거룩하고 중요한 창조의 사업입니다. 출산의 경험은 분만 및 탄생의 고통과 함께 새 생명체를 얻는 기쁨을 줍니다. 이때 어머니는 새 생명에 대한 소중함과 경이로움

을 체험하게 되며, 인간적 성숙과 여성으로서의 정체감을 재확인하고, 창조적 존재로서의 의미를 깨달으며, 새 생명을 낳음으로서 갖게 되는 가슴 벅참과 성취감, 그리고 자녀와의 관계맺음에 대한 축복을 느끼게 됩니다.

한편 새 생명의 탄생은 당사자인 자녀에게도 큰 의미를 지닙니다. 한 여성의 태내에서 그녀와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고, 감정을 공유하고 친교를 나눈 존재와 분리되어 한 개체로 세상에 나타난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의 직접적인 보호가 아닌, 한 개체로 살면서 그녀의 돌봄과 사랑을 기다려야 합니다. 어머니라 불리우는 존재를 믿으며 말입니다. 이러한 아기의 믿음에서 우리는 무엇을 느낄 수 있을까요? 하느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어머니에 대한 아기의 믿음과 같은 것은 아닐까요?

출산과 탄생은 위대한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가끔 인간적 관점에서 ‘위대함’ 보다는 불편함과 자아성취의 빨간 신호등으로 인식되기도 합니다. 갑작스런 임신으로 심리적 부담감을 안고 있는 경우, 수정과 임신과정에서 유전적 결함을 가진 아기를 출산해야 하는 경우, 임신으로 직장을 그만두거나 휴직을 해야 하는 경우 등의 인간의 고유성과 존귀성을 잠시 망각하게 하는 사건들로 인하여, 우리는 큰 죄악을 범하곤 합니다.

출산과 탄생의 의미는 이런 관점에서 접근되어야 할 사안입니다. 자녀와의 만남은 인간으로서는 예측할 수 없는 그 무언가의 놀라운 힘의 작용인 것입니다. 내 아기와는 만남은 내가 위해서, 내

아기가 위해서 이루어진 짝짓기가 아닙니다. 분명 위대한 역사 속에 맡겨진 신비의 체험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자녀를 세상적 관점에서 생각하지 말고 하느님의 사랑과 역사하심에 순종하는 부모됨의 관점에서 그들을 지켜주어야 하겠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신 마리아의 ‘모성’을 본받아서 말입니다. ♡





아기예수 프로젝트



아기예수 프로젝트는 영유아에 대한 본당과 기관의 사목적 배려를 그 핵심으로 한다. 영유아사목을 위한 첫 단계로서 최초의 교회이고 학교인 가정과 그 부모에 대한 사목적 배려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즉, 영유아들을 위한 사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아기들에 대한 우선적 배려와 함께 그 부모와 가정에 대한 배려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그 배려(보살핌)는 교회로부터 곧 본당과 유아교육기관으로부터 나와야 한다. 이를 위해 교회는 아기와 부모 그리고 가정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정책적 접근을 해야 한다. 또한 기관은 본당이 영유아와 그 가정에 효과적인 사목적 배려가 이루어지도록 본당과 긴밀한 협력을 하여야만 한다. 또한 영유아들을 위한 직접적인 역할도 할 수 있어야 한다.

영유아들이 하느님께 가까이 접근하고 하느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3개의 조력기관(가정, 본당, 유아교육기관)은 서로 도움을 주고받아야 한다. 각각의 고유한 역할들은 서로 공통되지만 서로 구분되며 상호작용을 통해 상승한다.

1

가정

유아를 보살피주고 가장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부모가 함께 있는 물리적, 영적, 심리적 그리고 전체로서의 공간이다. 가정과 그의 부모는 유아를 위해서 또 그들 스스로를 위해서 다른 기관들과 조력해 유아가 하느님의 존재를 알고 하느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고 그렇게 자라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2

본당

본당은 유아와 그의 가정과 부모가 함께 자신들의 신앙생활을 적극적으로 펼칠 수 있는 공간이며, 교리교육을 받을 수 있다. 본당과 본당에 소속된 사목자와 봉사자들은 유아들을 위해서 가정과 부모 또한 유아교육기관과 협력해 유아의 신앙교육을 도와야 한다.

3

유아교육기관

본당 내 유아교육 기관은 본당 유아사목에 대한 전문적인 협력이 가능한 기관이다. 기관의 교육공간과 교구교재, 인적자원을 활용해 유아신앙교육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아기예수 프로젝트는 본당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유아들에 대한 사목적 배려를 할 수 있는가 하는 사목적 접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물론 성가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아기예수 프로젝트는 부부사랑과 출산이라는 혼인의 목적을 시작으로 하느님 사랑을 받는 존재로서의 한 사람이 수태되는 시기부터 임신기-출생-영아기-유아기-유치기에 이르는 신학적 의미와 사목적 접근과 그 배려와 방법에 관한 것이다.

아기가 자람에 따라 그 부모와 가정도 완성의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어야 한다. 즉 아기의 성장 속도에 맞추어 부모도 성숙해가야 한다. 이를 위한 부모의 노력이 필요하며 동시에 본당과 기관의 협력과 도움이 반드시 동행되어야 한다. 부부에서 부모로의 전환은 이전까지의 변화보다도 훨씬 경이로운 것이다. 부모는 자신

의 삶의 처지가 변화된 것을 체험하고 이 변화가 자녀를 통해서 하느님의 은총과 축복으로 이루어진 사건임을 상기하고 감사의 마음을 갖고 생활하게 된다.

성장발달단계에 따라 교회가 어떻게 부모를 도와아기의 신앙을 키워 줄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먼저 한 가정을 이루고 예비 부모가 될 젊은이들에게는 혼인 전에 혼인의 의미와 목적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가정을 사랑으로 꾸려나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수태를 기다리고 있는 부부에게는 가정에 대한 이해와 가정의 중요성, 생명의 신비교육을 실시한다.

임신기에 있는 부모에게는 신앙으로 아기의 탄생을 준비할 수 있도록 본당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우선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본당 내에 봉사자들을 모집한다. 봉사자들은 출산을 한 경험이 있는 교우들로 임신부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있는 사람을 선정한다. 봉사자들이 모집되면 교구차원에서 봉사자 교육을 실시한다. 이 교육을 받은 봉사자들은 본당에서 성직자, 수도자와 협력해 임신부 모임을 이끌어 나간다. 봉사자들은 돌봄이 필요한 가정들과 친밀한 유대관계를 가지고 경험을 나누면서 모임을 함께 한다. 임신부 가정이 모집되면 임신부 모임은 6개월 과정으로 모임은 2주에 한 번씩 하며 부부가 함께 참석한다. 프로그램은 미사와 강의, 워크샵 등으로 다양하게 마련한다. 임신부 축복미사를 봉헌하면서 안수를 통해 태아와 부모를 축복해 준다. 그리고 아동 발달에 대한 이해와 그에 맞게 형성되어야 하는 신뢰, 애착, 안정

감 등의 정서발달을 위한 부모역할과 신앙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을 한다. 또 태어날 아기를 위한 선물 만드는 활동을 함께 한다. 예를 들면, 목주 만들기, 배냇저고리 만들기, 성모자상 만들기, 등을 한다. 특별히 하느님께서 주시는 선물로써 아기를 기다릴 수 있도록 가톨릭 태교북을 기록해 본다. 태교북 내용은 성탄과 성가정에 관한 성화, '태아를 축복하소서'와 같은 기도문, 유아세례와 세례명에 대한 안내, 목주기도, 신부님과 수녀님 그리고 친지들의 축하 메시지, 임신을 알게 되었을 때와 아기의 심장소리를 들었을 때의 기쁨, 초음파 사진 붙이기 등으로 구성한다. 그 외에도 태교에 관련된 성경말씀을 가지고 나누기를 하거나 '아기성장 보고서'와 같은 육아에 도움이 되는 영상물을 함께 시청한다.

아기가 태어났을 때는 본당 전체가 한 생명의 탄생을 축하할 수 있도록 미사를 봉헌하고 주보 등에 공지를 한다. 또 가정에 출산 축하카드를 보내고 수도자나 봉사자가 방문을 하기도 한다.

영아기에 있는 아이들은 유아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 준다. 대부분 선정과 세례명 선정에 대한 도움을 줄 수도 있고, 백일 축하미사와 첫 축일미사를 봉헌한다. 모빌과 같은 영아들을 위한 교구 등을 제작해 보급하기도 한다.

유아기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는 가톨릭 유아노래를 들려주고 가르치며 쉽게 기도나 신앙에 맛들이게 한다. 또한 가정에서 부모가 함께 활동하고 성경이야기 등을 들려 줄 수 있는 가정

교리서를 보급한다. 무엇보다 부모의 기도생활과 신앙이 아이의 신앙을 결정한다는 것을 알고 모범을 보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격려한다. 유치기에 있는 아이들은 주일학교와 연계하여 적극적인 신앙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우리는 좋은 선생님을 '부모님 같은 선생님'라고 말한다. 부모는 자녀와의 특유한 사랑의 관계 때문에 타인의 교육 역할과 비교해 볼 때 본래적이고 일차적이다. 부모는 그 자녀들에 대한 최초의 교육자요, 가장 중요한 교육자이다. 부모의 교육 권리와 의무는 대치되거나 양도될 수 없는 것이므로 타인이 완전히 위임받거나 빼앗을 수 없다.

서울대교구 청소년국 유아부에서는 아기에수 프로젝트를 기획해 가정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가정 공동체가 작은 교회를 이루어 아이가 자연스럽게 행복한 하느님의 자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

자료제공 서울대교구 청소년국 유아부



박미성 수녀
서울대교구 청소년국 유아부

4th Album ver. 2010

가톨릭 유아들의 노래 4

서울대교구 청소년국 유아부에서는 영·유아(만0세~만5세)들이 즐겁게 듣고 따라 부를 수 있는 가톨릭 유아노래를 2006년도부터 만들었습니다. 2010년 발매한 '가톨릭 유아노래 4집'에는 제2회 가톨릭 유아노랫말 공모전을 통해 입상된 18곡이 담겨져 있습니다.

〈가톨릭 유아노래 4집〉

대림절과 성탄절에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며 부를 수 있는 노래
엄마, 아버지가 자녀에게 들려주는 노래
성인상녀와 관련된 노래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감사드리며 부를 수 있는 노래
친구에게 축복을 빌어주는 노래
식사 하기전, 잠자기 전 부를 수 있는 노래

★ 구성
유아노래CD (AR/MR)
악보집

★ 가격
C D : 10,000원
악보집 : 2,000원

★ 활용방안
본 당 - 유아부, 유치부 신앙교리 시간에 가톨릭 유아노래를 통해 재미있게 교리를 접할 수 있어요.
가 정 - 부모님과 함께 가톨릭 유아노래를 통해 예수님을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어요.
선물용 - 자녀의 생일과 축일, 첫영성체, 부활절과 성탄절 등 뜻 깊은 날에 선물해 보세요.

★ 구입
청소년국장터 www.catholicshop.or.kr 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 문의사항
청소년국 유아부 www.catholicinfant.or.kr
02)727-2110, 2111, 2115

* 청소년국 유아부 홈페이지에 올리면 가톨릭 유아노래 전곡을 들을 수 있습니다.
가정과 본당에서 영유아와 부모가 함께 신나게 부를 수 있는 가톨릭 유아노래를 지금 만나보세요!!

천주교서울대교구 청소년국 유아부

* 서울대교구 유아교육 기관 주소록

2010년 2월 말 기준

지역	지구	소속	원명	유/어	소속본당(회/청)	정원	교사수	전화번호	인근본당	담당수도회
중 서 울	1	교구	가명	어린이집	중림동	84	8	365-7021	중림동	평신도
			가명	유치원	중림동	110	7	362-7593	중림동	평신도
			근화	유치원	신당동	100	6	2237-1684	신당동	샬트르
			대건	유치원	한강	191	12	790-5016	한강	영원한 도움
			복자	유치원	후암동	120	7	319-2915	후암동	영원한 도움
		수도회	계성	유치원	샬트르	300	13	712-0826	용산	샬트르
			이촌	어린이집	용산구청(구립)	99	11	713-9920	새남터	순교복자
		사회복지	성심	어린이집	중구청(구립)	146	24	2232-6905	신당동	노틀담
			약수	어린이집	중구청(구립)	95	12	2252-7672	신당동	예수성심시녀회
	2	교구	홍제성당	유치원	홍제동	96	7	396-7704	홍제동	성가소비녀
	3	교구	하늘한조각	어린이집	역촌동	76	7	382-5616	역촌동	원죄마리아
		사회복지	성모자애	어린이집	성모자애원법인	121	9	354-1400	불광동	평신도
		수도회	바다의 별	유치원	원죄마리아	139	7	387-0325	불광동	원죄마리아
	4	교구	세종	유치원	세종로	75	5	733-1475	세종로	영원한 도움
			혜화	유치원	혜화동	240	12	743-7021	혜화동	샬트르
			선한	유치원	선한목자	100	6	919-2226	길음동	선한목자
			다윗	어린이집	돈암동(구립)	49	4	925-3224	돈암동	포교분도
		수도회	바다의 별	어린이집	원죄마리아	49	4	941-8918	정릉동	원죄마리아
			베네딕도	유치원	포교분도	380	19	925-9893	돈암동	포교분도
			종로성모	어린이집	명휘원법인	50	9	730-5529	가회동	영원한 도움
		사회복지	베들레헴	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	20	6	3676-7705	성북동	살레시오
		빈민사목	햇살놀이	어린이집	빈민사목위원회	8	2	941-1434	장위동	순교복자
	6	교구	요한	어린이집	미아3동(구립)	79	7	983-1146	미아3동	올리베따노



지역	지구	소속	원명	유/어	소속본당(회/청)	정원	교사수	전화번호	인근본당	담당수도회
중 서 울	6	수도회	성체	유치원	인보성체	175	13	993-7411	수유동	인보성체
		사회복지	원당	어린이집	도봉구청(구립)	52	6	3491-0533	방학동	평신도
			쌍문2동	어린이집	도봉구청(구립)	116	11	902-6966	쌍문2동	평신도
	5	교구	소화	유치원	제기동	150	6	921-0136	제기동	샬트르
			젬마	유치원	이문동	100	6	957-8166	이문동	순교복자
			대건	어린이집	신내동	66	6	2208-0457	신내동	거룩한 말씀
		교구	로사	유치원	성수동	110	7	497-2547	성수동	영원한 도움
			성심	유치원	왕십리	100	6	2293-0621	왕십리	포교분도
	8	교구	인애	유치원	자양동	80	4	457-6109	자양동	성빈첸트
			마장성모	어린이집	성동구청(구립)	104	11	2290-3183	마장동	성모성심
			중곡성심	어린이집	광진구청(구립)	91	8	3437-2381	중곡동	예수성심시녀회
		수도회	성보나	유치원	고덕동	90	4	427-1123	고덕동	순교복자
			천호	유치원	천호동	225	14	470-1633	천호동	예수성심전교
	9	교구	상일	어린이집	강동구청(구립)	135	13	426-3701	고덕동	평신도
		사회복지	천사	어린이집	마천동	61	6	409-1406	마천동	평신도
	10	교구	조약돌	어린이집	석촌동	24	5	3432-0008	석촌동	평신도
			마천	어린이집	송파구청(구립)	147	16	406-2300	마천동	성가소비녀
	11	수도회	성요셉	유치원	까리따스	220	12	543-8819	청담동	까리따스
		사회복지	논현성모	어린이집	강남구청(구립)	168	21	515-6572	논현동	까리따스
			도곡	어린이집	강남구청(구립)	164	29	572-9110	도곡동	평신도
	12	교구	석문	유치원	서초동	120	7	585-5881	서초동	평신도
			반포성모	유치원	반포	87	7	537-4224	반포	영원한 도움
			반포1동	어린이집	잠원동(구립)	120	11	518-1630	잠원동	예수성심전교

서
서
울

2010년 2월 말 기준

지역	소속	원명	유/어	소속본당(회/청)	정원	교사수	전화번호	인근본당	담당수도회
의정부	교구	능곡성당	유치원	능곡	120	5	974-4525	능곡	샬트르
		성가정	유치원	행신2동	60	3	979-4077	행신2동	거룩한말씀
		성모(의정부)	유치원	의정부주교좌	137	8	872-0553	의정부	성가소비
		성모(일산)	유치원	일산	120	6	975-2279	일산	인보성체
		성바오로	유치원	행신1동	160	4	938-0924	행신1동	평신도
		소화	유치원	법원리	110	4	958-2789	법원리	평신도
		효성	유치원	동두천	80	3	864-4302	동두천	인보성체
		성심	어린이집	금곡	55	5	591-2389	금곡	프란치스코
	수도회	바다의 별	어린이집	원죄마리아	97	7	904-4051	일산	원죄마리아
	사회복지	성모	어린이집	고양시	56	10	975-3313	일산	예수
		전곡성요셉	어린이집	사회복지회	92	7	832-1069	*	평신도



회칙 『생명의 복음』 - 세번째 여정

인간 생명의 존엄성에 관해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께서 주시는 가르침



이동호 신부
가톨릭대 윤리신학교수
가톨릭교리신학원 부원장

시작하며

“개를 죽인다고 내 가족이 살아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또 다른 죽음이 하나 늘어나는 것일 뿐이죠.”

여기서 ‘개’ 는 2004년 20명 살인 혐의로 사형이 확정된 유영철이고, 인생 칠순을 바라보시는 ‘나’ 는 ‘개’ 에게 자신의 팔순 노모와 육순 부인 그리고 4대 독자까지 몽땅 살해당한 피해가족 고정원 루치아노 형제입니다. 이 글을 준비하는 단계부터 이분의 말씀이 필자의 가슴에 계속 맴도는 것은, 바로 창간호에서 처음 회칙 소개를 할 때 교황님께서 ‘슬쩍’ 사형제를 인정하시는 것처럼 오해될 수도 있겠다는 염려 때문입니다. 그 표현을 다시 상기시켜드리자면, “회칙 56항 §2의 표현에서, 범죄로 야기된 무질서를 바로 잡는 것이 불가능하고 그래서 사회를 보호할 수 없어 사형까지 시켜야 하는 경우가 ‘실제로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해도, 아주 드물 것임니다’ 라고 하여, 마치 ‘드물게라도’ 사형제를 용인(tolerance)해야 하

는 것으로 비쳐질 수 있겠습니다”(본지 창간호, 27쪽). 좀 더 명확히 하려면, “다른 방법으로는 사회를 보호할 수 없는 경우”(회칙 56항 §2)는 어떤 상황을 말씀하시려는 것일까요? 교황님께서 의도하시는, “아주 드물지만 실제로 없는 것” 은 아닌 사형을 기필코 시켜야 할 그런 경우가 있기는 할까요? 본당의 ‘생명수호담당봉사자’(생수봉 코디네이터)로서 여러분께 누가 사형집행을 꼭 해야 할 윤리적 상황을 묻는다면 무엇이라고 대답하실지요?

지난 호에서 소개해드렸던 인간 생명에 대한 현대의 위협과 그리고 그리스도교의 메시지에 대한 성찰에 이어, 이번 호에서는 제3장 지킬 규범으로서 하느님의 법(신법)과 제4장 실천 과제로서 새로운 생명문화와 결론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제3장

살인하지 못 한다

: 하느님의 신성한 법

“한 번은 어떤 사람이 예수께 와서 ‘선생님, 제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께서는 … ‘네가 생명의 나라로 들어가려거든 계명을 지켜라’ 하고 대답하십니다(마태 19,16.17.).” 이런 이유로, 교황님께서는 당신의 회칙에서 하느님의 사랑어린 초대로서의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계명의 삶’을 제시해주고자 하십니다. 그런 계명 중에서 첫 번째이며 가장 기본적인 계명은 제5계명 살인 금지에서 초대교회부터 지속적으로 읽어낸 ‘인간 생명의 신성 불가침성’을 수호하는 것(54항)이며, 바로 그런 생명 수호를 위해 몇 가지 지침들을 다음과 같이 제시해드립니다.

첫째, 타인 생명에 대한 ‘침해 금지’의 의무와 함께 자기 생명에 대한 ‘정당 방어’의 권리가 개인 스스로에게나 국가 책임자에게나 부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55항). ‘사형제’가 지닌 처벌 권한도 그 권리에서 나오는데, 처벌의 목적은 범죄로 야기된 무질서를 바로 잡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사회를 보호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범죄자를 사형에 처하는 극단까지 가서는 안 된다.”(56항 §2)는 것입니다.

둘째, ‘무고한 생명’에 대해 ‘직접 그리고 의도적인’ 침해를 개입도 공권력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고의적인 낙태’에 대해 우선은 남녀 당사자, 가족·친지, 의료진, 보건행정 담당자가 책임 있고, 그 다음은 낙태입법화를 꾀하는 국제기구나 단체(59항)도 그리고

인간 배아의 인격성을 부정하는 일부의 현대 유전학(60항)도 책임이 있는데, 교회는 초대교회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직접 낙태’의 그 어떤 경우라도 단죄해왔습니다(62항).

셋째, 인격체인 ‘인간 배아’에 대한 인위적인 생산·조작·폐기 행위도 그리고 우생학적 의도로 하는 태아진단기술(63항)도 일체 금지되어야 합니다.

넷째, 고통을 제거하기 위한 의도적 ‘안락사’도 단죄되는데, ‘과도한 치료 중단’과는 필히 구분해야 합니다(65항).

다섯째, ‘자살’도 ‘자살 보조’도 명백히 살인죄로 단죄되며, 악을 행함으로써 선을 지향한다는 것도 ‘그릇된 자비심’일 뿐입니다(66-67항).

여섯째, 마지막으로 교황님께서는 신성한 인간 생명의 불가침성에 법으로 개입해보려는 ‘합법화의 경향’에 집중하시며 강하게 우려하십니다. 인간 배아 사용과 낙태와 안락사의 실천을 과반수 찬성으로 제정되는 국법(69항)이 허용하게 되는 것인데, 현대문화의 특징인 ‘윤리적 상대주의’(70항)가 그 안에 작용하고 있습니다. 과반수나 민주적인 방식으로도 제한할 수 없는 것이 ‘자연법’에서 나오는 ‘인권의 존중’이며 국법과 공권력의 목적이 ‘공동선의 보장’(71항)인데, ‘개인 생명의 수호’에서부터 그 보장은 시작됩니다(72항). 그리하여 생명권을 억압하는 악법에 대해 시민들과 의료인들의 ‘양심의 반발’ 의무와 악법을 더 축소시키도록 입법자의 ‘더 작은 악’의 선택 의무를 실천하도록 요구하십니다(73항).

이렇게 계명 준수와 원리 실천을 통해 인간 생명이 다양한 부문들에서 모두 증진되도록 권고하시는 것입니다.

제4장

너희가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 인간 생명의 새로운 문화를 위하여

교황님께서는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게”(루카 4,18) 파견 받은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주신 ‘복음’ 자체가 선물임을 일깨워줍니다. 그래서 교회의 신원이며 목표인 ‘복음화’가 시민적 인 활동과 교회적인 활동 그 전체를 포함(78항)하듯이, 각 부문에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증거하도록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복음 선포는 먼저, 신성한 인간 생명을 직접 침해하는 고의적 낙태와 안락사를 배척하고, 성과 출산 그리고 고통과 죽음의 온전한 의미를 생명 과학과 기술에서도 총체적으로 반영(81항)하도록 하며, 교리교육과 설교 그리고 개인 대화 속에서 사목자, 교리교사, 신학자, 일반 교육자도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강화(82항)하도록, 나아가 개인과 공동체의 기도 행위 속에서 생명에 대한 감사와 경축을 하도록 하시며, 1991년 추기경회의 때 건의한 대로 지역교회에서 ‘생명의 날’ 제정과 거행을 제안해드립니다(85항).

복음 증거도 역시, 생명의 복음에 봉사해야 하는데, ‘죽음의 문화’가 ‘생명의 문화’보다 더 강력해 보이기에 사랑에 입각해 특별한 봉사가 편견과 차별 없는 일관성을 가지고 특별한 관심 속에 드러나야 합니다(87항). 그 봉사에는 투철한 교육활동과 장기적인 사업과 자발적 활동을 다음과 같은 많은 수단들을 통해 수행해야 합니다.

첫째로, ‘생명과 기술 그리고 상담’ 분야에서, 진보된 ‘자연적 출산조절 센터’가 필요하며 혼인과 가정 및 입양 상담기관들 그리고 약물중독이나 정신적 육체적 장애자와 말기환자 및 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의 단체들과 협회도 수단으로서 요구됩니다(88항).

둘째로, ‘직업’ 분야에서, 의사, 약사, 간호사, 원목자, 남녀 수도자, 관리자, 자원봉사자 등의 활동도 복음적 증거의 수단이 되며, 특히 의료인이 고의적 낙태와 안락사 수행에 직접 내몰릴 때 ‘양심의 거부권’도 긴요합니다(89항). 자원봉사자는 물론, 특별히 ‘국가 지도자’가 ‘입법’ 활동에서 그리고 공권력이 가정과 인구증가 정책에서 노인과 아이를 돌보도록 ‘노동시간표’를 규정해야 합니다(90-91항).

셋째, ‘가정’ 분야에서, 가정이 참으로 ‘생명의 성역’임을 드러내기 위해 ‘선물’로서의 생명의 출산과 그 증여의 의미를 확인(92항)하도록 하고, ‘기도’로써 생명을 경축하며 사회 연대성을 통해 버려질 생명의 입양이나 가난으로 인한 ‘원격 입양’(93항)을 실천해야 합니다. 안락사로 내몰리지 않도록 노인에 대한 관심(94항)도 필요합니다.

넷째, ‘문화’ 분야에서, 특히 그리스도교 공동체 내에서 ‘도덕적 주관주의’를 고집하는 ‘죽음의 문화’를 거부할 비판적인 시각도 요긴합니다(95항). 특히 사회적으로 올바른 ‘양심’을 형성(96항)하도록 해야 합니다.

다섯째, ‘교육’ 분야에서, 생명의 첫 순간부터 지닌 가치와 함께 청소년에게는 성과 사랑의 온전한 의미를, 부부들에게는 윤리적으로 정당한 자연적 수태조절을 훈련할 기회를, 노인들에게는 고

통과 죽음의 완전한 의미를 배우고 가르치도록 해야만 합니다. 특히 ‘세계 병자의 날’도 거행해야 합니다(97항). 지성인들도 생명문화 건설에 동참하도록 ‘교황청 생명학술원’ (Pontifical Academy for Life)을 설립하였으니 가톨릭대학교에서 생명윤리센터와 연구소도 좋은 수단이 될 것입니다. 특별히 매스미디어 종사자들의 임무는 막중합니다(98항).

여섯째, ‘여성학’ 분야에서, ‘남성 우월’의 표본들을 모방하기보다는 여성의 재능을 고양시키고 차별을 없애려는 ‘새로운 여권주의’ (New Feminism)를 수립해 ‘탁월한 생명 봉사자’가 되게 해야 합니다. 낙태를 경험한 여성들도 화해성사로 거듭 태어나 새롭게 헌신해야 합니다(99항).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생명을 주는 복음에게 효과적이고 지속적으로 봉사하기 위해서는, 생명을 위한 ‘기도’와 ‘단식’이 효과적인 무기가 됩니다(100항). 생명 존중은 교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인간 사회 전체’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101항).

결론

교황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태어난 아기” (이사 9,6) 예수님을 다시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아기의 생명을 온몸으로 받아들이는 성마리아의 모성이 생명의 복음의 ‘증거자’ 이셨음을 되새기게 해줍니다. ‘천주의 모친’ 이셨던 것입니다(103항).

“아기를 낳기만 하면” (묵시 12,4) 삼켜버리려는 ‘악의 세력’으로부터 위협 받는 생명의 현실을 요셉과 아기와 함께 온몸으로 견뎌 내신 성모께서는 고단한 이집트 피난살이(104항) 속에서도, “두려

워하지 말라” (루카 1,30.37)라는 천사의 위로와 함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께서 부활의 광채로 비추어주시는 “새 하늘과 새 땅” (묵시 21,1)을 평생을 조망하셨습니다. 바로 그 성모 어머니께 찬미의 시를 이렇게 드리합니다.

“오 마리아... 살아있는 이들의 어머니시여!
생명의 모든 원리를 당신께 맡겨드리나이다.
굽어보소서, 성모여, 세상에 태어나지 못한 수많은 아기들을
굽어보소서.
힘든 삶을 살아가는 불쌍한 이들을 굽어보소서 ...
당신 아드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정직과 사랑으로,
이 시대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게 해주소서...”
(105항).

마감하며

“이번 판결은 또 한 번 저를 죽이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제 가족이 죽었을 때도 누구 하나 책임있는 태도를 보인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제가 간절히 바랐던 비는 깡그리 무시됐습니다.” 지난 2월 25일 헌법재판소가 5대 4로 사형제의 합헌 판결을 내렸을 때 칠순을 바라보는 고 루치아노 형제는 ‘또 한 번의 억울함’을 당한 것입니다. 그분은 이미 살인마 유영철을 용서해 아들로 입양했고 사형제 폐지 청원서도 제출했으며 그런 운동에도 앞장서 왔기에 참 많이 허탈해 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 현재는 ‘타인 생명권의 보장’과 ‘극악 범죄의 예방’ 등의 이유와 ‘국민의 법감정’에 기대고 있지만, 이미 유엔은 1988년 ‘사형제도의 살인 범죄율과의 무관함’을 진작 결론 내린 바 있습니다. ‘집행자’라는 작년 개봉한 영화에서는 사형제 논란을 ‘사형 집행자’의 입장에서 조명했는데, 결론은 ‘사형은 또 다른 살인 행위’라는 것입니다. 12년 전의 마지막 사형집행자인 교도관 김 모 씨는 어느 인터뷰 기사에서 “전통적으로 사형집행 당일엔 액운을 집에 가져가지 않으려고 동료와 목욕을 하고 술을 마신 뒤 여관에 서 잠을 잔다. 종일 긴장했다가 술 마실 때가 돼서야 ‘왜 하필 나였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괴로운 마음에 서로 위로했다”라고 밝히면서도 ‘나쁜 기억’ 때문에 가족들에게는 한 번도 사형집행 사실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 출근하자 사형 명령이 떨어지면 어떻겠느냐”는 기자 질문에 그는 “상상하기도 싫다”고 고개를 저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교도관의 입장에서 할 말은 없다. 다만 법은 지키라고 있기에 현행법에 사형제가 규정돼 있다면 집행하는 게 옳다는 것이 대다수 교도관의 생각”이라니, 그저 직분에 ‘충직’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가해자의 죽음이 아니라 피해자들이 아픔을 나누고 서로 도울 수 있는 제도적인 시스템을 갖춰야 합니다. 그러지 않은 채 인과응보, 법감정 운운하는 것은 사람을 두 번 죽이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끝없는 분노와 깊은 슬픔이 지나 마음의 평화를 찾은 후 ‘원수 짓’을 용서한 것이 아니라 ‘원수’라는 사람을 사랑한 사람(루카 6,27 참조)으로서 ‘진리’에 대해 참된 증언을 하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아무나 도달할 수 있는 경지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

게 용서하지 않으면 그 미운 감정으로 자신이 견디지 못해 서서히 스스로 파괴될 것이기에, 그런 생명 존중만이 유일한 해답이며 ‘살 길’이라는 것입니다.

사형이라는 수단으로 공간적으로 ‘격리·제거’해야 할 경우가 있다면, 상습적인 살인범이 ‘또 다른 피해’를 발생하지 않도록 ‘긴급 예방’ 차원에서만이 그 범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유차·교정이 부과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국가가 공권력이 그런 ‘유차·교정 시설’을 운영할 수준이나 비용을 감당할 능력이 안 되는 경우에는, 자기 생명에 대한 ‘정당한 방어’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사형제를 견뎌내야(tolerance) 할 상황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법체계가 사회보장의 수준에 있어서 앞선 선진국에서조차 개발도상국처럼 사형을 용인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고 루치아노 형제는 피해가족들과 사회가 가진 ‘두려움’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살인 가해자에게 물리적으로 ‘보복’한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에 이렇게 안타까워합니다.

“용서를 통해 한평생을 몸의 한 부분처럼 지내온 생각조차 사랑으로 변화될 수 있음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무엇이 두려워 새로운 희망으로 나아가는 걸 꺼리는 걸까요.”

끝까지 읽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생수·봉’ 코디네이터 여러분의 봉사 활동에 대해 성모님과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을 빌면서, 아기 예수님의 성탄을 미리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낙태 여성의 삶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라헬 프로그램’

라헬 프로그램은 1984년 미국 밀워키 교구(Milwaukee Diocese)에서 빅토리아 쏜(Victoria Thom)에 의해 시작되었다. 현재 미국 내 140여 교구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아일랜드, 캐나다, 필리핀 등 전 세계 여러 교구에서도 진행하고 있다. 낙태한 수많은 여성들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 평화와 희망을 되찾고 있다.



강인숙 프리스카 김포 구암약국 약사
인천교구 가정사목부 생명분과장 / 라헬프로그램 진행자

심각한 정신적 후유증을 불러오는 낙태

10주된 태아의 모형을 보여주면 “10주에 이렇게 다 생기냐” 고 보는 사람들마다 신기해하며 놀란다. 보이지 않고 드러나지 않으니 임신 10주면 자궁 안에 그저 세포딩어리 정도 있으리라 생각을 하는 것이다. 임신 10주에 손가락 발가락 10개씩 작지만 다 형성되어 있고 얼굴 형태도 갖추어져 있으며 핏줄도 드러나 있다. 그러나 이 시기에 낙태를 한다. 그저 사람의 형태가 아닌 정도로만 생각하고 낙태를 하는 것이다. 임신으로 인한 모든 부담과 주위의 시선에서 벗어나는 길은 임신을 종결하는 것이라 생각을 한다. 낙태를 하면 임신으로 인한 모든 부담에서 빠르게 벗어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러나 복잡한 상황에 대처해야 한다는 두려움과 주위 시선의 부담스러움 등으로 인해 선택한 낙태가 태아의 생명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여성의 생명도 서서히 죽이는 결과를 낳고 있다. 낙태를 한 여성은 낙태 즉시 혹은 삶의 어느 순간에 갑자기 낙태 상황을 돌이키면서 심각한 죄책감으로 괴로워하게 된다. 그저 세포딩어리인줄 알았던 생명이 우리와 같은 형태를 지니고 있었던 생명이었음을 인지하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죄책감과 후회, 슬픔과 공허감을 마음 속 깊이 안고 살아간다. 뒤늦게 깨달은 생명의 절대성



에 대한 인식, 상처받은 모성에 대한 자각이 있지만 “사랑받아야 할 내 아이”는 이 세상에 없다. 지속적인 사회 활동, 타인과의 만남 등 다양한 도피 방법들은 마음과 양심을 계속 괴롭히는 만성적인 내면의 공허, 아이에 대한 상실감을 사라지게 하지 않는다.

낙태의 정신적 후유증은 불안, 죄의식, 우울증, 수면 장애, 대인기피증, 희망이나 도움의 상실, 멈출 수 없는 울음, 의욕부진, 자살 충동, 자신에 대한 학대, 다른 아이들에 대한 사랑 부족, 음주, 흡연, 약물 중독, 임신이 되지 않거나 임신에 문제가 생기는 등이 있다.

낙태한 여성의 영성적 상처를 치유하다

낙태 후 정신적 후유증을 치유하는 프로그램 중 대표적인 것으로 라헬 프로그램 이 있다. 태아와 여성의 생명권이 모두 중요하기 때문에 낙태를 반대하는 가톨릭에서는 낙태를 한 여성 신자들이 낙태 후에 낙태의 진실을 알고 죄책감으로 괴로워 한다는 사실에 사목적인 대안이 필요했다. 낙태한 사실을 뉘우치고 있는 여성들을 정신적으로 위로하고 그들이 가슴이 파하고 있는 그들의 낙태된 아이들과의 화해의 프로그램이 필요했던 것이다. 라헬 프로그램은 미국 가톨릭교회에서 낙태 후 치유사목의 일환으로 진행하고 있는

라헬 프로젝트(Project Rachel) 안에 있는 프로그램으로 낙태를 경험한 사람들의 정신적, 영성적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프로그램 중 하나이다.

라헬 프로그램은 1984년 미국 밀워키 교구(Milwaukee Diocese)에서 빅토리아 쏰(Victoria Thom)에 의해 시작되었다. 현재 미국 내 140여 교구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아일랜드, 캐나다, 필리핀 등 전 세계 여러 교구에서도 진행하고 있다. 낙태한 수많은 여성들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 평화와 희망을 되찾고 있다.

라헬 프로그램을 통해 프로그램 참가자들은 첫째, 낙태된 아이가 나를 용서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둘째, 낙태된 아이에게 미안함을 전하고 용서를 구하는 편지를 씌으로써 자신을 표현하게 되며 낙태된 아이와 새로운 관계를 만들도록 도와준다. 삶의 새로운 의미를 찾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이다. 셋째, 마음 놓고 슬퍼 할 수 있게 한다. 잘 애도하는 사람이 잘 살 수 있다. 슬픔은 마음과 영혼 그리고 정신적인 치유과정이며 완전함으로 돌아갈 수 있는 통로이다. 라헬 프로그램은 낙태된 아이를 잘 떠나보내는 예식으로도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라헬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와 제대로 된 작별을 하게 된다. 프로그램을 끝낸 후 일상생활 중에서 그 예식을 기억하며

낙태된 아이에게 지어준 이름으로 아이를 위해 기도하고 기원해주는 연결 고리를 마련하게 된다. 라헬 프로그램을 통해 낙태한 여성들은 그들의 죄를 뉘우치고 용서하고 용서받으며 생명의 길로 돌아오고 있다.

죄와 어둠에서 벗어나 자신의 삶을 돌아보다

낙태한 여성은 낙태로 인해 자신의 삶이 정신적 후유증을 앓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고 그러한 후유증이 자신의 삶을 황폐화시키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라헬 프로그램을 통해 낙태한 여성은 자신의 삶을 생명이 통하는 길로 인도받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다. 또한 자신의 모성을 회복하면서 생명을 보호하고 지키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발판을 마련하게 된다. 라헬 프로그램에 참가한 여성들은 죄와 어둠을 벗어나며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 내면의 상처를 회복하며 이제는 스스로 생명의 길로 나갈 수 있는 힘을 받는다.

라헬 프로그램의 창시자 빅토리아 쏰 여사는 “낙태는 여성들에게 궁극적으로는 영성적인 접근이 필요한 문제”라며 “낙태의 슬픔과 고통을 겪은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 교회는 치유와 위로를 주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라헬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성은 낙태 후 고통 받았던 문제들에 대해 정신적, 영성적, 심리적 치유와 위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라헬 프로그램을 통해서 생명의 수호자가 될 가능성이 열리게 될 것이다.

우리가 어떤 과정을 거쳐 낙태를 했던 간에 그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는 낙태하지 않고 새로운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교황 요한바오로 2세 성하께서 『생명의 복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간생명을 공격하면 결핍과 고독이 생기며 불확실과 불안이 우리를 따라 다닌다는 사실을 낙태한 여성은 뼈저리게 느꼈을 것이다. 자신의 삶이 죄악으로 물들었음을 깊이 깨닫고 죄에서 나오는 죽음의 세력을 물리치는 데 라헬 프로그램이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낙태를 경험한 여성들이 라헬 프로그램을 통해 인간생명에 대한 사랑, 인간 생명에 대한 봉사의 새로운 여정을 출발하길 기대한다. 그리고 마더테레사 수녀님의 말씀처럼 라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여성들이 예수님을 통해 치유되고 자유롭게 되기를 바라며 진정한 기쁨과 평화와 사랑의 원천이신 하느님을 찾고 그분께서 온전함과 행복을 다시 가져다주시기를 기도한다. ♡

1. 위기임신 전문상담

상담의 대상

1. 임신부 : 기혼자, 미혼자, 청소년 등
2. 임신부의 배우자 / 태아의 부친
3. 낙태경험자
4. 낙태경험자의 가족
5. 낙태관련 종사자

1) 영성생활상담소

- 1) 문의가능 시간 및 연락처
: 월~금 9:30~17:30 ☎ 02-776-8405, 02-776-2516
토/일 10:00~17:00 ☎ 010-9770-7461
- 2) 상담장소 : 영성생활상담소 상담실(중구 명동2가 1번지 가톨릭회관 324호)
- 3) 홈페이지 : www.rcckorea.or.kr

2) 나우리심리상담센터

- 1) 상담운영시간 : 월~금 10:00~18:00 (사전예약 시 21:00까지 가능)
- 2) 문의 및 연락처 : ☎ 02-986-4447 / 011-9733-4466
- 3) 상담장소 : 나우리심리상담센터 상담실(성북구 동선동3가 163번지 3층)
- 4) E-mail : ks1467@hanmail.net

2. 장기기증 · 시신기증 · 조혈모세포 및 제대혈기증

- 1) 한마음한몸운동본부(모든 상담 및 신청가능)
☎ 02-3789-3488 www.obos.or.kr

- 2)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시신기증)
☎ 02-2258-7135

- 3) 가톨릭조혈모세포은행(조혈모세포 및 제대혈기증)
www.chscb.com
- 제대혈기증 ☎ 02-2258-7458
- 조혈모세포기증 ☎ 02-532-6517

3. 성교육(청소년&청년)

한국 틴스타 ☎ 02-755-2629 www.teenstar.or.kr

4. 자살예방 상담

한마음한몸운동본부 자살예방센터 ☎ 1599-3079(생명친구)

천주교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 02-727-2350
www.forlife.or.kr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생명윤리위원회 ☎ 02-460-7623
bioethics.cbck.or.kr, prolife.cbck.or.kr(생명운동본부)

* 생명수호기관 : 모자 보호

	단체	전화	E-mail, 홈페이지
미혼모 시설	마음자리	02-2691-4365	momjari@naver.com
	새싹들의 집	031-457-4383	saessach@hanmail.net
	생명의 집	031-334-7168	smyh119@hanmail.net
	인천 자모원	032-772-0071	http://injamoo.or.kr injamoo2000@hanmail.net
	마리아의 집	033-262-4617	www.maryhome.or.kr
	대전 자모원	042-934-6934	jamowwon-tj@hanmail.net
	자모원	043-212-0437	www.jamowon.or.kr jamowon0@kornet.net
	마리아 모성원	051-253-7543	www.marymosungwon.or.kr mosungwon@hanmail.net
	성모의 집	061-279-8004	sm2010@hanmail.net
	함께 크는 집	02-855-0370	dearjungjin@hanmail.net
미혼모자 공동 생활시설	스텔라의 집	032-864-0055	srvalentina@hanmail.net
	모니카의 집	032-832-8075	susanna2006@hanmail.net
	요셉의 집	033-242-4617	mather-baby@daum.net
	마리아 모성의 집	051-255-7543	mosungeuijp@naver.com
	생명터	055-244-1784	ngo0720@hanmail.net

입양원	성가정 입양원	서울시 성북구 성북동 산 9-15 www.holyfcac.or.kr, hfc@holyfcac.or.kr 02-764-4741~3, FAX. 02-764-4746
	꽃동네 천사의 집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인곡리 산 1-45 043-879-0285

2011년도 생명수호 관련 교육 및 행사안내

■ 제 5회 생명의 신비상 시상식 및 강연회

- 일시 : 2월 17일(목) 오후 4시
- 장소 : 미정
- 대상 : 수상자, 관계자

■ 학술세미나 20차

- 일시 : 4월 28일(목)
- 장소 : 가톨릭회관 1층
- 대상 : 신자, 일반

■ 학술세미나 21차

- 일시 : 9월 22일(목)
- 장소 : 가톨릭회관 1층
- 대상 : 신자, 일반

■ 학술세미나 22차

- 일시 : 11월 중
- 장소 : 미정
- 대상 : 신자, 일반

■ 참생명학교

- 일시 : 상반기 3회 / 하반기 3회
- 장소 : 해당 지구 본당
- 대상 : 신자, 일반

■ 제5회 생명수호 체험수기 공모전

- 접수마감 : 4월 30일
- 심사 및 시상 : 5월
- 대상 : 신자, 일반

■ 생명관련 교회문헌읽기모임 11차

- 일시 : 4월 7일~28일 매주(목) 4주간
- 장소 : 교구청별관
- 대상 : 신자, 일반

■ 생명관련 교회문헌읽기모임 12차

- 일시 : 10월 6일~27일 매주(목) 4주간
- 장소 : 교구청별관
- 대상 : 신자, 일반

■ 본당 생명수호담당자 상반기(택1회)

- 일시 : 5월 27일(금)~28일(토)
6월 2일(목)~3일(금)
- 장소 : 아론의 집본당
- 대상 : 생명수호 담당자

■ 본당 생명수호담당자 하반기(택1회)

- 일시 : 11월 4일(금)~5일(토)
11월 9일(수)~10일(목)
- 장소 : 아론의 집본당
- 대상 : 생명수호 담당자

■ 생명위원회 설립기념 '생명미사'

- 일시 : 12월 4일(생명수호주일)
- 장소 : 명동대성당
- 대상 : 신자

■ 청년 생명피정 '성·생명·사랑의 길'

- 일시 : 연 10회
- 장소 : 미정
- 대상 : 청년

* 기타 자세한 사항과 그 외 교육 및 행사안내는 서울주보와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www.forlife.or.kr
Tel. 02-727-2350~2

생명의 신비기금



모든 생명은 그 존재 자체로 아름답고 모든 가치에 우선해 존중받아야 합니다.

생명의 신비기금은?

- 배아, 태아, 말기환자 등 소외되기 쉬운 소중한 생명 하나하나가 존중받을 수 있도록 생명수호 활동하는 곳에 지원합니다.
- 올바른 생명가치관을 정립하고 확산시키기 위해 학술 및 교육활동에 지원합니다.
- 생명의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출판 및 문화행사에 지원합니다.

후원에 감사드리며

- 생명위원회 활동소식지를 보내드립니다.
- 생명관련 문화 행사와 교육에 초대합니다.
- 설립기념 생명미사 때 후원자님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후원방법

- 정기 기부계좌 자동이체(후원신청서 작성)
- 후원금 문의 : 02-727-2353
- 무통장, 온라인 입금 : 우리은행 1005-601-046898 예금주 : (재)천주교서울대교구 유지재단 생명위원회

- 생명수호를 위한 뜻있는 분들의 후원을 기다립니다.

* 보내주신 후원금은 법인세법 제18조와 소득세법 제3조에 의거 법인세 및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